

## 관계성 측면에서 본 경복궁의 미학특성 분석

An Analysi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yeongbokgung from a Viewpoint of Relationship

연태경\* / Yon, Tae-Gyung  
이연숙\*\* / Lee, Yeun-Sook

### Abstract

This study is one of studies which refer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abou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it is worthy to recognize our traditional aesthetics from which we may get a solution for improving our surrounding.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holistic framework to understand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a viewpoint of relationship. As a secondary purpose with this framework, Gyeongbokgung which is one of Korean traditional palaces in Choson dynasty was analyzed and appropriate case example images were gained. Through this process, the framework could get better capability to persuade relativity of this study by showing relevant example. Through the purpose, the uniqueness of this study were like following; First, it referred a word 'relationship' clearly and exposed it to a systematic framework. Second, it referred spac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ynthetically comparing with that other literatures referred the characteristics partially focused on their interests. Third, many literatures showed the characteristics partially by some case examples and photos but, it showed a complete case example and appropriate photos to endow persuasive power for understanding the framework.

키워드 : 전통건축, 관계성, 미학특성, 경복궁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과거 수년간 서양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동양의 사상과는 다른 축을 그으며 발전해 왔던 서양 문화는 우리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도입되었고, 그 결과 서양의 이기주의, 관계상실, 여유상실, 대량생산의 기계론적 사고 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현대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우리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라져가는 관계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전통건축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상당수에 이르며 관련 논문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내용이 소개되어 왔다.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들(권삼운 1999; 최부득 2001 등)도 있으나 관계성 측면에서 정리

된 문헌은 우경국(1998)의 저서뿐이며, 대부분은 특정부재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소개한 문헌들(신영훈 2000 등)이거나 저자의 관심 분야를 위주로 작성된 문헌들(김홍식 1997; 두완수 외 1984, 류경수 1998, 승효상 1996; 안영배 1997; 우경국 1998; 이금진 1998; 임석재 1999 등), 혹은 한국 건축사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강영환 1998; 김동욱 1999 등)이다. 단행본의 경우는 특히 아름다움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어휘나 분류 기준이 없이, 기행문 형식으로 쓰여졌거나 저자의 느낌이나 주요 관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동양의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성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건축과 관련된 교육계와 연구계에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미학적 특성들을 관계성 차원에서 종합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복궁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틀에 설득력을 부여함으로써 틀을 증명하고 강화시키는

\* 정회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이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것이 본 연구의 2차적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독창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많은 문헌들에서 전통건축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우경국(1998)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성'이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사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이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하나의 틀로 드러내어 사용하였다. 둘째, 기존의 많은 문헌들에서 전통건축의 공간 및 미학특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저자의 관점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 및 미학특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기존 문헌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사례와 관련사진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각각의 모든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예제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각적 예제가 없는 부분의 이해에 관해서는 독자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제시된 틀에 의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득력을 부여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전통건축의 미학특성을 17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관계성 측면에서 재분류함으로써 전통건축의 미학특성에 대한 하나의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 둘째, 이에 따라 얻어진 틀을 토대로 경북궁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앞에서 설정된 틀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적 특성이 기존 문헌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실제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 건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통건축의 미학특성을 분류하여 체계화시키고, 이를 관계성 측면에서 재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미학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관계성 측면에서의 분석 기준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건축, 자연과 건축, 공간과 공간, 음과 양, 시간과 공간의 여덟 범주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하위 항목으로는 기존 문헌에서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17가지의 어휘들을 분류하여 적용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 때, 17가지 미학특성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셋째,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특성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북궁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조사 후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답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충분한 사례 제공으로 앞에서 추출한 분석틀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된 사례를 근거로 경북궁의 미학특성을 틀로써 체계화하였다.

## 2.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특성








최근 들어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많은 관련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전통건축과 문화 및 미학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건축전문잡지, 학회지논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고, 문헌고찰 결과 나타나는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어휘들 중 미학특성에 관한 어휘를 중심으로 미학특성을 1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는 미학특성의 내용과 함께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관련문헌들, 그리고 그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표 1>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특성

미학 특성	내 용	해당문헌	이미지
구조 미학	최소한으로 가공된 부재의 사용으로 노출된 부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구조미학이다. 구조를 드러냄으로 인해 구조체인 기둥과 보가 주체가 되고 벽면이 부수적인 것이 된다.	고유섭 1999 권삼윤 1999 임석재 1999 주남철 1982	
궤적의 미학	전통건축의 지붕에서 나타나는 이중곡선과 현수곡선에 의해 그려지는 지붕선은 궤적을 그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고 있다.	권삼윤 1999 신영훈 1997 임석재 1999	
뜸의 미학	뜸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뜸의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공간의 이동과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뜸의 미학이다.	권삼윤 1999 최부득 2001	
바라봄의 미학	건축은 자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하였고, 인간은 삶 속에서 건축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볼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인간은 그러한 건축을 통해 자연까지도 바라봄으로써 삶의 미학적 측면을 고양시켜왔다.	신영훈 2001 최부득 2001	
빈자의 미학	우리 옛 건축은 비움으로써 삶을 담을 수 있었고, 이러한 비움은 예위씨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비우기 위해 주변을 채움으로 에워싼 것이다. 빈자의 미학은 음과 양의 조화를 잘 나타내는 미학특성이다.	권삼윤 1999 김홍식 1997 송효상 1996 최부득 2001	
상징의 미학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상징적 요소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들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었고, 이들은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난다.	권삼윤 1999 최지연 2001	
신성의 미학	종교적, 사상적 기능 등 신 혹은 정신과 관련된 일들이 생활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전통건축에서는 신성하고 엄숙한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삼윤 1999 신영훈 1997 우경국 1998	
역동적 미학	한국 전통건축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역동성은 건축물 사이의 인력이나 주변 요소와의 관계에 의한 형태적 역동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철학적 역동성으로 구분된다.	권삼윤 1999 김홍식 1997 이금진 1998 최부득 2001	
위계의 미학	유교사상의 영향에 따라 건축물 형상 자체는 인간의 신분에 따른 위계질서를 보이며, 기능적 배치에 의한 동선의 분리는 사실상 신분의 차이와 남녀의 차이를 구분하여 심리적 위계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권삼윤 1999	
유기적 미학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통건축은 그 사이에서 유기적 형태를 취하며, 분산식 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집합성에 의해 각 채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자연의 섭리를 따른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권삼윤 1999 류경수 1997 안영배 1997 최부득 2001	

(표1 계속)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미학 특성	내용	해당문헌	이미지
작용의 미학	자연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풍수지리사상이 발달했고, 자연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부재를 이용했으며, 인간이 건축에 작용하므로 건축에는 인간의 삶과 세월이 묻어가고, 건축 역시 인간에 작용하기에 인간은 휴먼스케일을 이용하여 건축 행위를 하였다.	강영환 1998 권삼윤 1999 임석재 1999 최부득 2001	
중용의 미학	전통건축은 자연과의 사이에서 그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완전히 흡수하지도 않고 중용을 지키며 발전해 왔으므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미학특성을 내포한다.	권삼윤 1999 류경수 1998 임석재 1999 최부득 2001	
착시의 미학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보이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특성에 의해 우리 전통건축은 착시효과를 통해 건축물의 안정감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장중함과 날림함을 모두 지니게 되었다.	두원수 외 1984 임석재 1999	
투명의 미학	공간의 개방성과 중점성에 의해 솔리드와 보이드의 반복과 연속으로 공간에 투명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간접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시각적, 철학적 개념을 포함하는 4차원적 투명의 미학이 나타난다.	남정현 외 2001 임석재 1999 최부득 2001 최은석 외 1998	
틈의 미학	우리 옛 건축은 숨을 쉬도록 틈을 많이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틈에 의해 틈 사이로 보는 미학이 발달하였다. 틈 사이로 보이는 다양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은 지극히 철학적 성격을 내포한다.	권삼윤 1999 최부득 2001	
폐쇄의 미학	한국 전통건축은 안으로 열린 구성을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았을 때 폐쇄적인 형태를 지닌다. 이는 양반들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내부의 생활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강영환 1998 김연정 2000 최부득 2001	
해학의 미학	해학의 미학은 전체 형태보다는 외외의 어느 한 부재나 요소를 파격적으로 도입할 때 나타나며, 때로는 시각적 대상은 해학적이지 않으나 그 대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삶의 패턴과 같은 비가시적 유형의 대상이 해학적 성격을 지닐 때 나타난다.	김경수 2000 임석재 1999 최부득 2001	

사진출처: <표 1>에서 제시한 모든 사진은 개인 촬영한 것임.

### 3. 관계성과 미학특성의 연계성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분류된 전통건축의 미학특성을 다시 관계성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관계성은 우경국(1998)이 제시한 11가지의 관계 개념 중, 개체와 무리와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건축과 건축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삶과 죽음과의 관계는 음과 양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하늘과 땅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건축 자체에 관련이 없으며, 공간과 공간과의 관계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의 개념까지 확대하여 건축과 건축과의 관계로 재해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가지 관계성을 제외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건축, 자연과 건축, 건축과 건축, 음과 양, 시간과 공간의 여덟 범주로 나누었다. 이러한 관계성만을 제시한 우경국(1998)의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여덟 범주로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17가지의 미학특성의 내용을 토대로 미학특성과 여덟 범주의 관계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미학특성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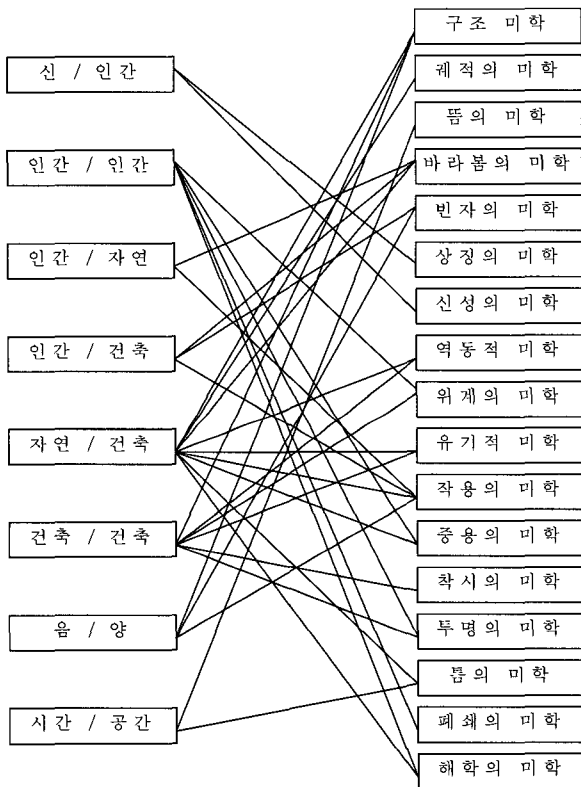
<표 2> 관계성 측면에서 본 전통건축 공간의 미학특성

관계성	미학특성	내용
신/인간	상징의 미학	건축 외관 및 실내 구성요소, 그리고 장식에 나타나는 문양이 신과의 관계나 자연의 섭리에 따른 소양 등을 상징하거나, 인간을 신격화시켜 상징하는 미학
	신성의 미학	종교, 사상, 의식 등과 관련하여 조상, 신 등 신성한 존재를 위하거나 나타내는 것 혹은 공간에서의 미학
인간/인간	위계의 미학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맞추어 그 위계에 따라 건축 형태 자체의 과장과 축소에 의해 기능적, 혹은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위계의 미학
	중용의 미학	중용을 지키는 선에서 사생활 보호와 대인관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된 미학
인간/자연	폐쇄의 미학	신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며 내부로 열린 건축으로 인한 미학
	투명의 미학	공간의 투명성에 의해 인간관계에서 간접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른 미학
인간/건축	해학의 미학	요소나 공간의 기능에서 묻어나오는 삶에 대한 해학의 미학
	바라봄의 미학	건축의 터잡기와 관련하여 인간이 외부공간에서 미당을 바라보는 것과, 인간이 건축을 통과하여 자연을 바라봄에 의해 형성되는 아름다움에 의한 미학
인간/건축	작용의 미학	자연의 질서가 그 자연 자체와 자연 요소들을 사용하는 인간에게까지 작용을 함에 따라 형성되는 미학
	바라봄의 미학	인간이 건축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보다 아름다운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배치함에 의한 미학
인간/건축	빈자의 미학	비어있는 공간의 존재에 의해 빈 곳에 우리의 삶과 자연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자의 미학
	작용의 미학	인간이 건축을 이용하면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의한 아름다움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인간에 대한 건축 자체의 작용을 고려한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미학
자연/건축	구조 미학	과대한 치장 없이 가공이 거의 되지 않은 자연적인 구조 자체의 이용과 노출에 의한 무기교의 기교, 가구미, 단순미, 소박함의 표현에 대한 미학
	계적의 미학	지붕의 처마곡선이 이루는 이중곡선이나 용마루의 현수곡선이 이루는 계적의 미학
자연/건축	바라봄의 미학	좌향 및 터잡기와 관련이 있는 건축이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경관의 아름다움에 의한 미학
	역동적 미학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와 흐름이 건축에 사용된 창호지나 창살 등의 부재를 통해 반영되어 나타나는 역동적 미학
자연/건축	유기적 미학	건축의 형태가 자연의 형상을 닮아 비정형적이며,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미학
	작용의 미학	건축에 사용되는 자연적 요소 및 자연으로부터 나온 자재들이 자연의 질서에 맞추어 이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미학
자연/건축	중용의 미학	빛을 반쯤 걸러내는 창호지, 자연을 닮아 장중하면서도 날림한 지붕과 처마, 담장을 넘지 않는 굴곡이 이루는 자연과의 조화 등에서 나타나는 중용의 미학
	틈의 미학	틈 사이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건축 형성과 숨을 쉬는 건축 창조에 의한 미학
자연/건축	해학의 미학	자연을 닮은 부재의 파격적 사용에 의해 형성된 건축에서 나타나는 해학의 미학
	구조 미학	노출 구조에 의한 부재들의 중점성에 의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추상적 이미지가 제공되고, 회벽면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회화성의 표현에 의한 미학
건축/건축	역동적 미학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건축의 선과 덩어리들이 시각적 운동감을 자아내고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에 따른 미학
	위계의 미학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이 동일할지라도 그 기능에 따라 건축물 자체 사이에 위계가 성립함에 따른 미학
건축/건축	유기적 미학	분산식 배치에 의한 기능성 및 각각의 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집합성에 의한 미학,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대칭을 이루지만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 관한 유기적 미학
	착시의 미학	방향과 길이에서 나타나는 착시의 미학, 방향의 착시는 수직선, 수평선, 상방향과대시의 착시를 의미하고, 길이의 착시는 공포의 발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착시의 미학

(표2 계속)

관계성	미학특성	내 용
건축/건축	투명의 미학	사방을 막기 보다는 모서리를 열어두거나 공간의 중첩 및 관입, 그리고 솔리드와 보이드의 반복에 의한 투명성, 그리고 그로 인해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중첩에 대한 미학
	구조 미학	보나 기둥의 선적 부재(양)와 비탕이 되는 회벽의 면적 요소(음)가 만나 이루는 구조 미학
음양	빈자의 미학	비용을 위해 채움을 이루어 온 전통건축은 양이 있어야 음이 존재한다는 정신세계를 내포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비용의 공간이며, 이 때 나타나는 것이 빈자의 미학
	작용의 미학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음·양 상호간의 작용에 의한 미학
	틈의 미학	건축의 사이 공간들, 진입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틈의 미학
시간/공간	틈의 미학	틈 사이로 바라보기에 의해 서시각각 변하는 공간의 변화에 대한 미학

이러한 분석과정에 따른 관계성과 미학특성과의 연계성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계성과 미학특성의 연계성

#### 4. 경북궁의 공간특성을 통해서 본 미학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북궁 답사는 문헌고찰을 통한 사전조사 후 2003년 4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답사를 통해 문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분석은 궁궐의 중심 영역인 외전과 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답사를 위한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문헌의 목록은 다음에서 제시한 <표 3>과 같다.

<표 3> 경북궁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에 사용된 문헌 목록

번호	저자	년도	제 목	출판사
1	강경선 외	2000	(이야기가 있는) 경북궁 나들이	도서출판 역사넷
2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건축	(주)시공사
3	김재일	1997	우리의 고궁	한림미디어
4	류경수	1998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주)대원사
5	신영훈	1997	서울의 궁궐	조선일보사
6	신응수	2002	천년 궁궐을 짓는다	김영사
7	이강근	1998	경복궁	(주)대원사
8	허 균	1997	고궁산책	(주)교보문고
9	홍순민	1999	우리 궁궐 이야기	도서출판 청년사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관계성에 의거하여 재분류된 미학특성에 대해 각각 건축요소, 공간구성, 장식요소의 세 측면의 표현유형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표현유형에 속하는 분석대상 특성들은 유호정(1999)의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와 김연정(2000)의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그리고 김미경(2002)의 '한국 전통성을 적용한 공동주거단지의 계획 특성 분석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기준을 참고로 하여 경북궁 사례 분석의 기준으로 이용하였으며,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유호정과 김미경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조요소를 건축요소에 포함시켰다. 유호정과 김미경은 공간구성특성과 의장특성에 대해, 김연정은 공간구성특성에 대해 분석기준을 제시했으며, 유호정은 공간구성특성을 평면형태, 동선구성방법, 외부공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김연정은 공간배치특성과 실내공간특성으로, 김미경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장특성에 대해서는 유호정과 김미경 모두 구조요소와 장식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준과 구체적 분석특성들을 참고로 하여 다음의 <표 4>와 같은 분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때 세 논문은 주거건축을 분석한 논문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기준에는 궁궐 건축 관련문헌의 내용을 참고하여 궁궐건축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표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현유형 분석기준

건축 요소	무량각, 계단, 공포, 굴뚝, 귀솟음, 금천교, 기단, 기둥, 담, 대문, 대청, 들어열개문, 마당, 벽, 보, 복도, 부연, 부재, 분합문, 서까래, 영계교, 용마루, 월대, 지붕, 창살, 창호, 채, 처마, 툇마루, 툇마루 문, 행각, 회계, 회랑
공간 구성	가변적 실내, 공간의 중첩 및 관입, 내려다보는 배치, 단차, 대청과 기둥, 모서리 열림, 배치, 부재의 노출과 중첩, 분산식 배치와 집합성, 비대칭의 대칭, 사이 공간, 상방향과대시, 에워쌌, 인접한 지붕, 일직선 배치, 중정구조, 좌우대칭, 지붕의 중첩, 진입, 행각 사이의 대문
장식 요소	난간, 단청, 담도, 드므, 망새, 문양, 박석, 벽화, 사신상, 서수, 십이지신상, 용/봉황 문양, 용상, 일월오악병, 지재, 잡상, 정, 창호지, 전장그림, 편액, 물계석

#### 4.1. 경북궁 개요









경복궁은 조선 5대 궁궐 중 정궁으로, 가장 대표적인 궁궐로써 다른 궁궐건축에 비해 더욱 권위적인 배치 및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궁궐들은 좌우대칭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연 지세에 맞추어 축이 변형되기도 하고 일부 유기적인 배치를 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궁은 광화문에서 홍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의 외전 및 강녕전, 교태전의 내전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의 남향배치를 이루며, 상당히 좌우대칭적인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광화문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사 건물과 맞추어 전체적인 중심축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원래의 모습은 모두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었다(강경선 외 2000; 김동현 2002; 신영훈 1997; 이강근 1998; 허균 1997 등).








4.2. 경북궁의 미학특성 분석

앞에서 제시한 <표 2>와 <표 4>에 근거하여 본 절에서는 경북궁의 미학특성을 분석하고, 앞서 언급한 미학적 특성들을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경북궁의 공간적 특성을 통해서 본 미학특성의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5>~<표 12>와 같고, 여기에서는 <표 4>에서 언급한 건축요소, 공간구성, 장식요소를 추출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경북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전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은 분석 내용에 참고한 문헌의 번호와 함께 분석대상 특성이 외전, 내전, 전체구성 중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괄호 안에 언급하였다.

<표 5> 경북궁의 미학특성1 - 신과 인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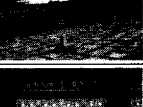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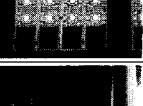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상징의 미학	건축요소	영제교(3,8 외전) 영제교는 외부와 신성한 법전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적 통로이며, 이를 건넌으로써 신성한 공간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무량각(1,2,3,6,9 내전) 왕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과 강녕전에는 용마루가 없는데, 이는 이 세상에 왕과 왕비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의미이며, 왕이 곧 용이므로 용마루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식요소	일월오악병(1,5,8 외전) 왕조의 만수무강을 상징하는 그림의 병풍으로, 자연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신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천장 그림(외전) 천장은 용, 봉황 등의 그림으로 임금을 상징하거나, 복이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한자로 장식하여 신에게 소망하거나, 상징성을 지닌 문양을 그려 넣는다.	
		드므(1,2,3,5,9 외전) 드므는 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불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벽사사실이며, 법전 앞의 월대 좌우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출처: 홍순민(1999), p.151.)	
		문양(1,3,4,8 외전, 내전) 궁궐건축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각종 문양들에는 신에게 바라는 바가 함축되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잠상(1,2,3,5 외전, 내전) 잠상은 살을 막아주는 신으로, 지붕 위에 잠상을 놓음으로써 나쁜 액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정(1,3,9 외전) 정은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왕권과 구주를 상징하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하늘의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상징물이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8.)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상징의 미학	장식요소	망새(2,3,5 외전, 내전) 용두나 취두와 같은 망새는 집귀와 화미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장식요소이다.	
		서수(1,2,3,4,5,8,9 외전) 근정전 월대 모서리에 있는 한 쌍의 해태는 인본주의를 상징하며, 그 형상은 임금의 교화를 받기 원하는 자세로, 그러한 어린 백성을 임금은 하늘을 대신해서 교화해야 한다.	
		십이지신상(1,3,4,7,8,9 외전) 십이지신상 역시 사신상과 함께 근정전 월대에 세워진 조각상으로, 열 두 방위를 상징하며, 수호의 상징으로 방위와 시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신성의 미학	건축요소	마당(외전) 근정전 앞의 마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넓은 공간에서는 왕의 즉위식 및 기타 신성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6.)	
		사신상(1,2,3,4,8,9 외전) 근정전 기단의 사방에 각각 하나씩 자리하고 있으며, 중앙의 근정전을 지켜주는 신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짐승들이다.	
	장식요소	서수(1,2,3,4,5,8,9 외전) 상상의 동물을 조각하여 만든 서수는 공간의 신성함을 의미하며, 부드러운 느낌의 표정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용/봉황 문양(1,3,4,8,9 외전) 왕을 의미하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나 봉황 장식을 통해 왕이 기거하는 곳은 신성한 곳을 암시한다. 특히 정전인 근정전 천장에 용 문양의 부조를 조각하여 신성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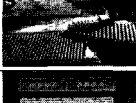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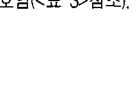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6> 경북궁의 미학특성2 -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위계의 미학	건축요소	계단(8 외전, 내전) 신분이 가장 높은 임금이 계단을 통해 근정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신분이 높은 곳으로 오름을 의미한다.	
		담(내전) 교태전 뒤편에는 꽃담을 설치하고, 강녕전 뒤편에는 굴뚝에 문양을 넣음으로써 신분을 과시하고 있다.	
		복도(1,9 전체) 임금은 땅을 직접 밟고 다니지 않고 건물과 건물을 옮겨갈 때에도 건물 사이의 복도를 통하여 다녔다. 현재 복도는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다.	
	장식요소	부연(외전, 내전) 부연은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분의 과시를 나타내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월대(2,3,4,5,6,7,8,9 외전) 월대의 높이와 너비를 통해 그 권위의 정도를 드러내며, 경북궁의 월대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어, 신분을 더욱 강조한다.	
		창살(3,9 외전, 내전) 화려한 창살 문양을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창살에 채색을 하여 임금의 권위와 신분을 과시하고 있다.	
		회랑(외전) 근정문과 근정전 좌우에 회랑을 설치하여 임금 이외에는 중앙의 길로 다니지 못하고 우회하여 다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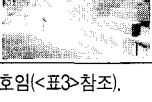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6 계속)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공간 구성		단차(2,8,9; 외전, 내전, 전체) 근정전 앞마당의 어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보다 높고, 교태전은 건물 자체의 바닥 높이에 차이를 두어 이용자의 신분의 위계를 나타낸다.	
		좌우대칭(2,5,7; 외전, 내전) 하나의 건축군은 좌우 대칭적 배치를 유지하여 권위적이고 위엄 있음을 나타내며, 신분의 과시를 표현한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77.)	
		중정구조(7; 외전, 내전) 행각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중심형 중정을 형성하여 공간에 깊이감을 주어 임금의 권위를 더욱 강조한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p.52-53.)	
위계의 미학		단청(3,7,9; 외전, 내전) 단청의 화려한 형태와 색채, 문양으로 궁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며, 임금의 신분이 상당히 높음을 나타낸다.	
		담도(1,3,8,9; 외전) 임금만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인 담도와 일반 계단의 구분으로 신분의 차이에 의한 위계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벽화(운룡도)(3,8; 외전) 현명한 임금이 있음으로 해서 어진 신하들이 있고, 어진 신하들이 있음으로 해서, 임금은 더욱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운룡에 비유하여 나타냈다.	
		용상(2,3,5,7,9; 외전) 용상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근엄하고 권위 있는 왕권을 표현하며, 달집과 일월오악병 및 문양 등을 통해 신분을 과시한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82.)	
		일월오악병(1,2,3,7,9; 외전) 국토를 지키는 오악의 신과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해와 달이 있는 일월오악병이 어좌를 둘러 국토와 창생이 임금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경영된다는 권위를 의미한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82.)	
		품계석(5,8,9; 외전)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품계석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인간 사이의 위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공간에 질서를 부여한다.	
중용의 미학	공간 구성	중정구조(외전, 내전) 정전은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지붕만 보이며, 행각 안에서의 생활은 외부의 시선에 대하여 보호된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p.52-53.)	
투명의 미학	건축 요소	창호(내전) 창호의 아래쪽 일부는 창호지를 바르지 않음으로써, 시각적, 청각적으로 반개방적이며,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공간 구성	사이 공간(3; 내전) 신분 과시를 위해 건물의 기반을 두어 높게 올림으로써 생긴 지면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비움으로써 채의 앞쪽과 뒤쪽이 연결되어 건물은 투명해진다.	
폐쇄의 미학	건축 요소	담(2; 전체) 각각의 건물군 주변에 담을 세움으로써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형태를 통해 내부의 생활을 보호하고 높은 신분을 과시한다.	
	공간 구성	뒷마루 문(외전, 내전) 뒷마루에 문을 달아 막아 놓음으로써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며, 이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분을 과시한다.	
해학의 미학	공간 구성	중정구조(3,4,9; 외전, 내전) 행각으로 정전을 둘러싸므로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며, 안쪽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식 요소	서수(3,4,5,8,9; 외전) 임금이 계시는 중화전을 지키고 있는 서수의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해학적이므로 왕의 공간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7> 경복궁의 미학특성3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바라봄의 미학	건축 요소	대청(6; 내전) 교태전의 대청에 앉아서, 혹은 서서 문을 모두 열어놓고 아름다운 후원을 바라보며 자연을 느낀다.	
	공간 구성	창호(5; 외전, 내전) 실내에는 사방으로 커다란 창호를 내어, 한 쪽의 그림과 같은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 수도 있다.	
작용의 미학	건축 요소	행각 사이의 대문(외전, 내전, 전체) 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유일한 통로인 대문은 그 기둥과 지붕으로 프레임 형성하며 그 사이로 바라봄을 유도한다.	
	건축 요소	자재(외전, 내전) 돌, 나무 등의 자재를 반듯하고 정연하게 다듬음으로써, 그 공간을 사용하는 임금이 반듯한 정치를 이루기를 바란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8> 경복궁의 미학특성4 - 인간과 건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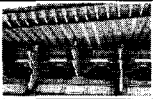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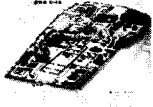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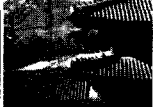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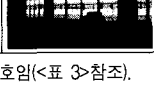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바라봄의 미학	공간 구성	중정구조(외전, 내전) 한 발짝 물러서서 정전을 바라보는 것이 가까이 서서 보는 것 보다 아름다우며, 이를 위해 빈 공간인 마당이 이용된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6.)	
	건축 요소	일직선 배치(1,2,3,4,7,9; 전체)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임금이 지나가는 중앙 통로에서의 바라봄이 가장 아름답도록 계획되었다.	
빈자의 미학	건축 요소	대청(내전) 교태전과 강녕전 및 천추전의 대청은 비워둠으로 인해 다양한 인간 생활의 모습을 담을 수 있고, 창의 개폐로 자연까지 담을 수 있다.	
	건축 요소	마당(9; 외전, 내전) 마당은 늘 비어있는 공간이며, 궁궐 마당은 비어있음으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6.)	
작용의 미학	건축 요소	부재(외전, 내전) 자연 부재를 사용함에 따라 인간이 부재를 접촉하고픈 욕망을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 삶의 흔적이 남게 된다.	
	공간 구성	사이 공간(전체) 건물과 건물의 사이 공간은 열려있음으로 해서 다른 공간으로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간에게 그 공간을 따라 계속 가고픈 심리적 작용을 가한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9> 경복궁의 미학특성5 -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구조 미학	건축 요소	기둥(외전, 내전)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였으며, 천연의 재료로 나무를 불게 물들임으로 해서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구조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75.)	
	건축 요소	보(외전) 구조체인 보는 기둥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사용하되, 궁궐이기 때문에 곧은 나무를 사용하였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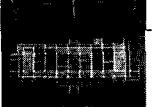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구조 미학	건축 요소	서까래(외전, 내전) 서까래는 굽기가 비슷한 나무들을 이용하여 구조를 노출하고 있으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구조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계획의 미학	건축 요소	처마(외전, 내전) 처마선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좌우로 날렵한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측면에 보아도 깊이에 따라 곡선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이중곡선을 이루고 있다.	
	건축 요소	옹마루(외전) 옹마루선이 이루고 있는 현수곡선은 하나의 계획을 이루며 처마선의 이중곡선과 함께 아름다운 계획의 미학을 드러낸다.	
바라봄의 미학	공간 구성	내려다보는 배치(외전, 내전) 경복궁은 평지에 자리한 궁궐로, 전체적인 지세는 평탄하나 각 층의 건물들은 기단을 높게 설치하여 주변의 요소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배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6.)	
역동적 미학	건축 요소	담, 화계(내전) 교태전 후원의 담장이 지형을 따라 계단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화계와 함께 시각적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 요소	창호(2: 외전, 내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도입으로 창살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지며, 바람이 불 경우 문풍지의 떨림으로 역동성을 느끼며, 그 자체가 아름답다.	
유기적 미학	건축 요소	지붕(8: 외전, 내전) 전통건축의 지붕선은 자연의 형상을 닮아 자연스런 곡선을 이루며, 이는 경복궁 주변의 현대식 건물과 대조를 이룬다.	
	공간 구성	배치(2: 전체) 경복궁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인 배치는 다소 자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궁궐에 비하면 경직되어 있다. (사진출처: 경복궁 안내 팸플릿.)	
		지붕의 중첩(4: 전체) 지붕의 중첩된 형상은 산이 중첩된 것과 같고, 첨탑이 겹쳐진 산봉우리와 같이 다양한 높낮이의 지붕이 겹쳐져 보인다.	
작용의 미학	건축 요소	기둥(6: 외전, 내전) 기둥을 세울 때,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나무의 뿌리 부분이 아래로, 가지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하여 뒤통림이 없도록 한다.	
	공간 구성	중정구조(외전, 내전) 정전은 행각으로 둘러싸여 주위 신지의 형국과 닮은 중정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명당구조로, 자연을 닮아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입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p.52-53.)	
중용의 미학	건축 요소	굴뚝(3,4,5,7,8: 외전, 내전) 굴뚝은 지붕을 넘지 않으며,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건축이 자연과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지붕(외전, 내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강한 수직선을 이루나, 이를 지붕의 곡선이 일부 가리면서 수직선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공간 구성	지붕과 처마(3,6: 외전, 내전) 지붕은 장엄하면서도 살짝 들어올린 처마에 의해 경쾌하고 날아갈 듯한 형상을 하여, 장중함과 날렵함의 조화를 이룬다.	
		장식 요소	박석(3,9: 외전) 회강암으로 된 박석은 그 표면을 다듬은 듯, 다듬지 않은 듯 인공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식 요소	창호지(외전, 내전) 외부의 빛이 반투명한 창호지를 통해 걸러져서 내부로 들어옴으로써 자극적이지도 어둡지도 않은 빛이 실내로 유입된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구조 미학	건축 요소	기둥(외전, 내전) 기둥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 기둥 자체가 숨을 쉴 수 있으며, 또한 그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자체가 숨을 쉴 수 있다.	
	건축 요소	대문(외전, 내전, 전체) 홍례문, 근정문 등과 같이 각 건축군으로 통하는 대문은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는 행각의 틀 안에서 유일한 숨통이 된다.	
틈의 미학	공간 요소	사이 공간(4: 전체) 건축과 건축 사이, 혹은 건축과 지면 사이에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바람과 인간의 시각이 흐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건축 사이의 틈을 통해 건축군 전체가 숨을 쉴 수 있다.	
	장식 요소	난간(외전, 내전) 툃마루의 난간은 선적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록 그 높이는 낮으나, 난간을 통해 형성되는 틈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	
역동적 미학	건축 요소	창살(내전) 강녕전 창호의 아래쪽 일부는 창호지가 발라져있지 않아, 창살의 틈을 통해 외부와 교감할 수 있고 공간이 숨을 쉰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10> 경복궁의 미학특성6 - 건축과 건축과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구조 미학	건축 요소	벽(외전, 내전) 벽면에 드러난 기둥은 벽면 마감과 구별되어 두드러지게 입체적으로 표현됨으로써 구조 미학을 한층 강조한다.	
	공간 구성	부재의 노출과 중첩(외전) 근정전과 사정전의 천장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써 구조재인 보와 도리 및 기둥 등이 그대로 드러나며 서로 중첩을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75.)	
역동적 미학	건축 요소	처마(외전, 내전) 처마선을 따라 한 점으로 모아지는 소실점이 각각 지붕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형성됨으로 인해 공간에 역동성이 부여된다.	
	공간 구성	사이 공간(전체) 건축과 건축 사이의 작은 사이 공간들은 시각적 흐름을 유도하여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위계의 미학	건축 요소	기단(2,3,4,5,7,8,9: 전체) 모두 임금이 사용하는 건물이지만 그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기단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어 건축 사이에 위계가 형성된다.	
	장식 요소	편액(외전, 내전) 같은 신분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공간의 기능에 따라 이름에 '전' 혹은 '당'이라고 붙여짐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위계질서가 이루어진다.	
유기적 미학	공간 구성	비대칭의 대칭(내전, 전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듯 하나 부분적으로 비대칭적 형상을 지니면서도 균형을 이룬다.	
작성의 미학	건축 요소	분산식 배치와 집합식(전체) 건물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건물군이 분산식 배치를 이루며, 이와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집합성을 이룬다. (사진출처: 경복궁 안내 팸플릿.)	
		공포(외전, 내전) 기둥이 전체 건축고에 비해 작으므로, 이를 시각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공포를 달아 착시현상을 통해 안정감을 준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10 계속)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착시의 미학	건축 요소	귀솟음(2, 외전, 내전) 우주를 평주보다 약간 높게 귀솟음하여 기둥이 작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더욱 안정된 모습이 되도록 착시효과를 준다.	
		동행각(1,5; 외전) 근정전 앞은 실제로 경사지이므로 동행각을 경사지게 하여 지형에 맞추어, 낮은 쪽 지붕이 치솟아 보이는 착시를 교정했다. (사진출처: 이강근(1998), p.30.)	
		지붕(외전, 내전) 지붕의 중앙 부분을 아래로 처지게 하여 우주(隅柱)에 압박감을 주지 않고 지붕의 하중을 시각적으로 줄여준다.	
투명의 미학	공간 구성	상방향과대시(외전) 같은 크기의 것이 상하로 있을 때 위의 것이 커보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위층을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 안정감을 준다.	
		채(외전, 내전) 채의 투명성으로 채를 중심으로 한 앞공간과 뒷공간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대청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기둥(내전) 뒷마루 앞 기둥은 하나의 수직열주를 이루며 그 사이로 외부와의 투명성을 보이고, 열 방향으로 깊이감을 느낀다.	
투명의 미학	공간 구성	가변적 실내(1; 내전) 교태전 실내는 가변성을 보이며 모든 실을 개방할 경우 전체가 투명한 공간이 된다.	
		공간의 중첩 및 관입(내전, 전체) 건축과 건축이 그 사이에 공간을 두고 중첩을 이루며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투명성에 의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모서리 열림(내전, 전체) 모서리를 막아놓지 않고 열어놓음으로써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표 12> 경북궁의 미학특성8 -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틈의 미학	공간 구성	진입(외전) 근정전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화문에서부터 홍례문, 근정문을 거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틈의 시간을 갖고 임금을 알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다.	
	장식 요소	사이 공간(4; 전체) 건축과 건축 사이의 틈을 통해 보이는 자연의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계절의 변화와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틈의 미학	장식 요소	난간(외전, 내전) 난간 문양을 형성하는 수직, 수평 부재 사이의 틈을 통해 자연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공간의 느낌이 달라짐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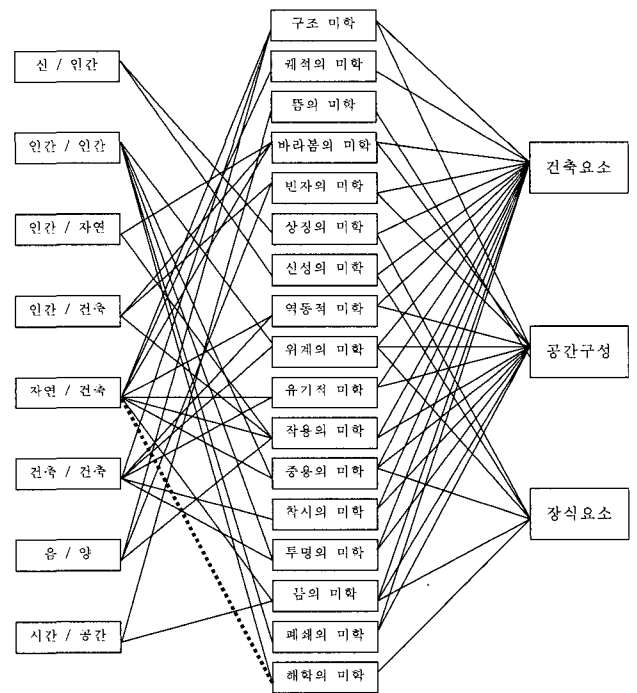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일반적으로 경북궁은 창덕궁, 경운궁, 창경궁 등의 다른 궁궐들에 비해 가장 위계적 질서와 근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경북궁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궁은 신분의 과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그 방식도 상당히 화려하고 복잡하다. 다른 궁궐에서 볼 수 없는 범전 앞 월대의 돌난간이나 십이지신상과 사신상의 배치, 그리고 축에 맞춘 엄격한 일직선상 배치, 좌우대칭의 형태, 화려한 채색과 문양 및 장식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의 <그림 1>을 기반으로 하여, 경북궁의 각 미학적 특성들이 어떠한 표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11> 경북궁의 미학특성7 - 음과 양의 관계

미학 특성	표현 유형	내용	관련사진
구조 미학	건축 요소	벽(외전, 내전) 창호로 되어 있는 벽면이 음이 되고 입체적으로 튀어 나온 노출된 붉은 나무 기둥이 양이 되어 조화를 이룬다.	
	공간 구성	대청과 기둥(내전) 비어있는 대청이 음이 되고 그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놓여있는 기둥이 양이 되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	
빈자의 미학	공간 구성	예위쌈(2; 외전, 내전, 전체) 행각이 마당을 예위쌈으로써 마당은 비어있는 음의 공간이 되고, 솟아있는 건물은 양이 되어, 음의 생성을 위한 양의 형성으로 공간이 구성되며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 (사진출처: 신영훈(1997), p.66.)	
		작용의 미학	배치(1,3,4,5,7,8,9; 전체) 자연의 기운이 건축과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므로, 풍수지리학에 따라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사진출처: 경북궁 안내 팸플렛.)

\* 괄호 안의 번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문헌의 번호임(<표 3>참조).  
\*\*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사진은 모두 개인 촬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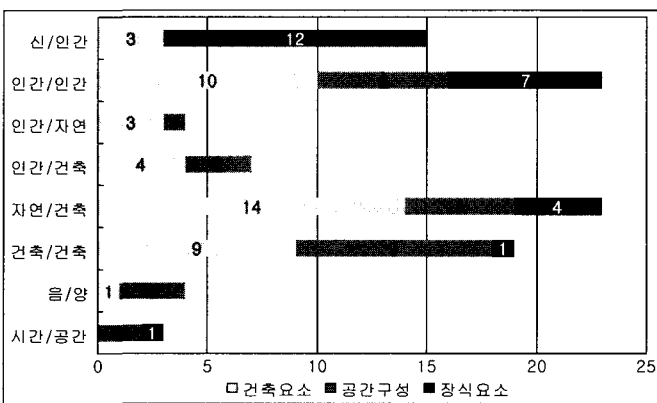
<그림 2> 경북궁 분석 결과 나타나는 특성



위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복궁 분석 결과 관계성과 미학특성의 연계성에 대해서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미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궁궐건축은 임금을 위한 건축이며, 이 공간은 신분의 과시와 임금의 근엄함, 그리고 장엄함, 신성함 등의 표현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며, 또한 경복궁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의 정궁으로서 위엄과 권위가 더욱 강조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의 미학특성과 표현유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궐적의 미학은 건축요소에서, 뜰의 미학은 공간구성에서, 해학의 미학은 장식요소에서 나타났으며, 구조 미학, 바라봄의 미학, 빈자의 미학, 역동적 미학, 유기적 미학, 작용의 미학, 착시의 미학, 투명의 미학, 폐쇄의 미학은 건축요소와 공간요소에서, 상징의 미학과 신성의 미학은 건축요소와 장식요소에서, 그리고 위계의 미학, 중용의 미학, 틈의 미학은 건축요소, 공간구성, 장식요소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건축요소는 15가지의 미학특성에서 표현되고 있고, 공간구성은 13가지, 장식요소는 5가지의 미학특성에서 표현되고 있어, 건축요소, 공간구성, 장식요소의 순으로 많은 미학특성에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복궁에서는 8범주의 관계성 중 인간과 인간,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유형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건축요소는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간구성은 건축과 건축과의 관계에서, 장식요소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사적 특성을 하나의 특성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림3>에서 나타난 수량적 자료는 미학특성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절대적 의미는 아니다.



<그림 3> 경복궁에서 나타난 관계성별 표현유형 개수 비교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많은 문헌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미학특성을 관계성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며, 사전조사 후 현지답사를 통해 관계

성 측면에서 경복궁의 미학특성을 건축요소, 공간구성, 장식요소의 관점으로 구별하여 정리한 후, 이들의 설명과 관련 사진 예제를 제시하였다. 답사를 통해 어떠한 국면을 보는가 하는 점에서는 분명 개인차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하나의 유사 특성들을 하나의 특성으로 취급하여 정리하였다. 모든 특성들을 엄밀히 구분하여 언급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분량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략히 언급하고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인 하나의 틀로 경복궁을 분석한 것은 전통건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그러나 경복궁에 대한 기존 문헌들이 많고, 이를 논하는 시각과 정보들은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정리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이 논문은 그러한 방향에서 하나의 시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틀이 하나의 기반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발전 및 보완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또 다른 시각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은 전통을 존중하고 미래 건축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식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경선 외, (이야기가 있는) 경복궁 나들이. 역사넷, 2000
2. 강영환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8
3. 권삼윤, 우리건축, 틈으로 본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4. 김경수, 건축미학산책. 도서출판 발언, 2000
5. 김동현, 서울의 궁궐 건축. 시공사, 2002
6. 김재일, 우리의 고궁: 조선왕조의 빛과 그늘. 한림미디어, 1997
7. 김홍식, 한국인의 우주관과 한옥의 아름다움. 229-246.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1997
8.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대원사, 1998
9. 송효상, 빈자의 미학. 미건사, 1996
10. 신영훈, 서울의 궁궐: 신영훈 문화재 전문위원의 역사기행. 서울: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7년 9월호 별책부록, 1997
11. 신영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현암사, 2000
12. 신영훈, 한옥의 조형의식. 대원사, 2001
13. 신응수, 천년 궁궐을 짓는다: 궁궐 도편수 신응수의 삶과 고건축 이야기. 김영사, 2002
14. 안영배, +산조: 안영배교수의 건축 이야기. 도서출판 발언, 1997
15. 우경국, 관계 흐름 건축: 우경국의 건축이야기. 현대건축사, 1998
16.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8
17.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18. 최부득,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미술문화, 2001
19. 허균, 고궁 산책. 주식회사 교보문고, 1997
20.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도서출판 청년사, 1999
21. 김미경, 한국 전통성을 적용한 공동주거단지의 계획 특성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2002
22. 김영정,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한국, 중국, 일본, 로마, 이집트, 이탈리아의 사례주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2000
23. 유호정,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1990년 이후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1999
24. 최지연,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2001

25. 두완수·박한규, 한국전통건축에서의 착시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984, 4(2)
26. 이금진,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역동성: 조선시대 상류주택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1998
27. 최은석·김진균, 한국전통건축공간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998, 18(2)
28. 경복궁 안내 팸플릿,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2003

<접수 : 2003. 4. 30>